

#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20·30대 소비자 대상으로

## A Study on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to Apply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ing on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장몽교(Meng Jiao Zhang)<sup>1</sup>, 이승신(Seung Sin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Global trade and Consumer, Konkuk University

---

### <Abstract>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means making financial plans by predicting expected incomes and expenditures needed for maintaining success in later life. Because this preparation needs long-term planning, preparing as early as possible is recommended. This study, therefore, uses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examining the intention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By using financial education and its understanding as additional variables, this study also intends to examine the ultimate effects on the intention.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in results and suggestions.

First, the level of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is lower than the average. The level of understanding finance is lower than the average, and particularly, the level of understanding retirement related finance is much lower.

Second, the more the attitude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positive,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ubjective norm 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s, the level of the intention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ends to be more higher. Therefore, relevant efforts to encourage this preparation are needed.

Third, the level of the intention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higher than the average, whereas financial education has no effects on the intention. This means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inancial education, its current implementation has many problem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can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olicy, given that this study targets relatively young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it can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making policies for their future retirements.

---

▲주제어(Key words):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재무교육경험정도(financial education), 주관적 금융지식(understanding of finance), 행동에 대한 태도(behavioral 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로 2016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eung Sin Lee, Department of Global trade and Consumer,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Tel: +82-2-450-3778, E-mail: Lchung@konkuk.ac.kr

## I. 서론

최근 한국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하면서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은퇴 후에 남은 수명은 매우 길어졌으므로 이제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은퇴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유엔미래보고서2030>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45~2050년에 88.4세까지 늘어나고, 2090~2100년에 95.5세로 전망하였다(Y. Park, J. C. Glenn, T. J. Gordon, & E. Florescu, 2012). Statistics Korea(2015)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8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8.17년, 여성의 기대여명이 10.5년으로 나타나 한국의 현재 20대·30대의 100세 수명이 보편화될 전망이다므로 현재의 20대·30대 소비자들이 맞이하게 될 노후의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질 것이다. 또한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 '늘어가는 세계 2015'에 따르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 2050년 65세 이상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인 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U.S. Census Bureau, 2016).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 연금, 의료, 복지 분야에 공적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사람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적인 보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노후 대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에 있어 철저한 은퇴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아야 된다. 핵가족화와 퇴직금제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자녀의 도움이나 퇴직금제도 같은 수단으로 노후 생활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생활은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는 시기인 만큼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 은퇴준비는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좋다(H. Ha, 2014).

은퇴준비는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은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은퇴준비는 은퇴준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S. Lim, 2013). 그러나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에 대한 부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H.

Choe, S. Joo, H. Cho, & M. Kim, 2012).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걱정은 하지만 은퇴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L. A. Morgan & J. K. Eckert, 2004). Samsung Life Retirement Research Center(2014) 은퇴준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로 211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20세 이상 성인들의 노후대비 저축금액은 월평균 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 가운데 43.4%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연령이 낮은 20대·30대 소비자들부터 은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와 관련한 이전 연구들은 은퇴를 곧 맞이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와 이미 퇴직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인 반면, 사회초년생이라 불릴 수 있는 20대·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능한 일찍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금전적 비용이 적게 들어 바람직하지만 20대·30대의 은퇴준비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Mirae Asset Life Retirement Research Center, 2012). 따라서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이 낮은 젊은 계층인 20대부터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 제고와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개인 재무설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면서 재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추세이다(I. Kwon, 2015). 재무설계와 재무교육의 공동목표는 소비자의 재무적 복리증진이지만 재무설계가 주로 중·장기적 재무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반면 재무교육은 개인의 재무적 능력향상과 재무문제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Y. Sung, 2012). 재무교육은 개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재무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J. Yoon et al., 2001).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은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S. H. Joo & J. E. Grable, 2005)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재무교육경험정도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다양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금융지식수준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침으로(H. Choi & Y. Lee, 2005; D. A. Hershey and J. C. Mowen, 2000; D. A. Hershey, J.

M. Jacobs-Lawson, J. J. McArdle, & F. Hamagami, 2007; J. M. Jacobs-Lawson & D. A. Hershey, 2005; J. Park & H. Cho, 2012)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주관적 금융지식과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와와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인간의 태도와 규범 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본다(I. 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이해에도 유용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들(E. Baek & S. Joung, 2012; L. L. Bailey, T. R. Simons, & K. H. Pollock, 2004; H. Choi & Y. Lee, 2005; B. A. Croy et al., 2010; H. Ha & S. Lee, 2014; E. Howlett, J. Kees, & E. Kemp, 2008; J. M. Jacobs-Lawson & D. A. Hershey, 2005)이 있다.

그 중 H. Choi and Y. Lee(2005)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이 개인의 은퇴준비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은퇴준비행동의도가 은퇴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H. Ha and S. Lee (2014)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20-30대 직장인의 은퇴저축행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이 사회초년생의 은퇴저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30대 직장인의 은퇴저축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적용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선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초로 은퇴관련 준비변수인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재무교육경험정도와 주관적 금융지식의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은퇴준비행동의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30대 소비자의 은퇴준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의 은퇴준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측에는 은퇴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은퇴준비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본 연구가 은퇴자들이 아닌 비교적 젊은 계층인 20·30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은퇴에 대한 대비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은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소득, 자산, 부채, 주택마련자금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양

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이론으로 입증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및 다른 추가변수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20대·30대 소비자의 특성에 적절한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제적 은퇴준비

#### 1) 경제적 은퇴준비 정의 및 필요성

은퇴란 인간이 전 생애, 즉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삶의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부모와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전기 단계와 삶의 주도적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실행하는 중기 단계를 거쳐 일정한 연령이나 기준에 의해 생산적 위치에서 물러나 인생의 후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적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다(M. Bae & K. Jeon, 2004). 은퇴준비의 개념을 단순히 정의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자산, 건강, 직업, 가족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준다.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자신의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은퇴 준비에는 재정적인 면, 정신적인 면, 신체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S. Lim, 2013).

노후생활문제로는 은퇴 후에 겪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소외감,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H. Choe et al., 2012). 일반적으로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준비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교류 및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S. Kim, 2009; J. Park, 2004).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위협하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Y. Jin, 2009). 경제적 은퇴준비에 있어서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은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은퇴준비는 은퇴준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S. Lim, 2013). 특히 과거에 비해 사회 진출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져 소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인생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대부분

의 경우 은퇴와 함께 기존의 경제적 수입은 끊어지거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J. Bae,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은퇴준비 중 경제적 측면의 준비로 국한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며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 2) 경제적 은퇴준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은퇴생활 전체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건강상태의 악화를 들었다(S. Ham, 2010; S. Kim, 2009; Y. Yuh, S. Joung, & S. Moon, 2007). S. Yang and S. Lee(2009)은 2007년도 전국가구 간접투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퇴 전 가구 중 절반 이상인 53.6%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고 특히 50대 이전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가구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Y. H. Lee(2007)의 연구에서 노후대비 시기로 30대라고 응답한 사람이 52.5%로 가장 높았고, 20~50대의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W. Jeong and E. Baek(2009)의 연구 결과도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적정시기에 대해서 30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2009)의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이 2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특히 노후준비를 하는 20대가 48.9%, 30대가 64.8%로 20·30세대 직장인의 노후준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30대 직장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20대와 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퇴설계를 분석한 K. Cha, M. Park, and Y. Kim(2008)에서 조사대상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은퇴를 위한 재무 설계를 하고 있었고, H. Park(2009)에서는 연구대상인 청·장년층 직장인의 약 65%정도가 은퇴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초반인 20대·30대부터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미루지 않고 시작해야 은퇴 전에 적정 수준의 은퇴 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전 연령층에서 경제적 은퇴준비를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적 은퇴준비의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경제적 은퇴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대·30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경제적 은퇴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 1)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의 정의

행동의도란 “고객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지배되는 고객의 후속행위”이며(W. Jang, 2011)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감정 또는 소비행동 전, 후에 갖게 되는 내적 반응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래행동을 계획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개인의 의지 또는 신념이다(J. Lee, 2012). 행동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에 따라 용어 및 구성 요인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정적 반응을 기초로 특정한 향후행동의 선행요인 및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소비자가 인지한 사실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되는 수입예산액을 계산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은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의지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가 은퇴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으로 확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 (1) 재무교육경험정도

재무교육은 소비자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며(H. Hong & K. Rhee, 1997), 소비자들의 재무행동 능력을 키우고 재무복지 증진을 취할 수 있다(W. J. Arnone, 1999). 재무교육은 재무설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무교육을 통해 소비자는 금융과 관련한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은퇴준비자에게 실시되는 재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재무설계는 자신의 생애 흐름에 맞춰, 획득할 돈과 소비할 돈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재정적인 플랜을 짜서 그 결과를 평가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자금, 자녀 교육자금과 같은 비중 있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재무교육의 목표는 단기적 재무문제 해결능력 향상뿐 아니라 중장기적 재무목표의 달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Y. Sung, S. Yang, H. Lee, K. Cha, & H. Choe, 2006). 본 연구에서는 재무교육을 소비자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재무행동 능력을 키우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재무교육 내용은 재무설계, 세금관리, 투자관리, 보험 및 위험관리, 노후설계 관련 교육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은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S. H. Joo & J. E. Grable, 2005). J. Kim and S. Park(2013)은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생활 인식 변인을 독립변수로, 경제적 은퇴준비 변인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재무교육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분석을 한 결과 노후생활인식과 경제적 은퇴준비 간에는 각 요인별로 재무교육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A. Hirad and P. M. Zorn(2001)와 P. J. Bayer, B. D. Bernheim, and J. K. Scholz(2009)의 연구결과에서 금융교육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저축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재무교육경험정도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어 변수로 선정하였다.

## (2) 주관적 금융지식

금융지식은 연구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E. Kim and C. Moon(2010)은 금융지식이란 금융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J. Kim and H. Choe(2012)는 재무관리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으며 재무관리역량이란 소비자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 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라고 정의하였다. 소비자행동이론에서, 소비자의 지식은 크게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과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구분되는데(M. Brucks, 1985), 객관적 지식은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스스로 관련 제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금융지식이란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 자신 스스로 지각한 주관적 정도를 의미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소비자가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금융지식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 Choi & Y. Lee, 2005; D. A. Hershey et al., 2007; D. A. Hershey & J. C. Mowen, 2000; J. M. Jacobs-Lawson & D. A. Hershey, 2005; J. Park & H.

Cho, 2012). D. A. Hershey and J. C. Mowen(2000)의 분석 결과를 보면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J. M. Jacobs-Lawson and D. A. Hershey(2005)과 D. A. Hershey et al.(2007)의 연구결과는 주관적 금융이해력이 은퇴준비를 증진시키는 유의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H. Choi and Y. Lee(2005)의 연구 결과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이 은퇴준비를 증가시켰으며 J. Park and H. Cho(2012)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이 은퇴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금융지식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선정하였다.

## (3) 경제적 은퇴준비관련 변수

은퇴준비행동을 밝히는 이론적 배경으로 최근 들어 인간의 태도와 규범 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I.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은퇴준비행동에 적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H. Choi & Y. Lee, 2005). M. Fishbein and I.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기본으로 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 등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과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I. Ajzen, 1991). 따라서 경제적 은퇴준비관련변수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은 세 가지의 독립적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태도로 행동 혹은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나 일반적인 느낌의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인식된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는 어떤 행동이나 대상물의 채택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효용성 또는 자신감과 가용자원을 말한다(I. Ajzen, 1991).

일반적으로 태도란 태도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설적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인이다(D. An & J. Kim, 2009). 태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로, 대상과 관련된 행동

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의견과 관련된 개인적 태도이다(J. Lim, J. Kim, S. Hong, & Y. Lee, 2006).

주관적 규범은 기대에서 만들어지는 동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행동 당사자 스스로가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가 속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특정행위에 대한 관념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인식을 말한다(M. Fishbein & I. Ajzen, 1975). 또는 주관적 규범은 행동 당사자가 속한 사회에서 행동 여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의식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하였다(I. Ajzen & M. Fishbein, 1980).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구성된다. 사회집단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규범적 신념이며,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관한 것이 순응동기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제신념과 인지된 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는 행동의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행동의 실행이 용이하고 자기의 의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 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라 정의된다(D. E. Schifter & I. Ajzen, 1985).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는 노력을 발휘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동기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 행동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의도는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계획하는가를 반영하는 일종의 동기요소로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H. A. Hausenblas, A. V. Carron, & D. E. Mack, 1997).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이해에도 유용한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핵심논지에 의하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은 은퇴에 대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은퇴준비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경우 은퇴 후 생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가 저축, 또는 연금가입과 같은 구체적인 은퇴준비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은퇴준비행동의도는 은퇴 또는 미래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 등의 방해요인이 등장할 경우 저축 또는 연금가입에 대한 개인의 의도는 실질적인 저축행위로 연계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H. Choi & Y. Lee,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 Jeong and E. Baek(2009)는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연령, 월소득, 주택소유형태와 은퇴교육 여부, 은퇴인식 및 태도 등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

에 관한 연구를 한 S. Hong and I. Kwak(2007)의 연구 결과에서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은퇴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S. H. Joo and V. W. Pauwels(2002)연구에서는 재무태도와 행동, 위험수용성향, 재무교육 여부가 은퇴를 위한 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적용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선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수

소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의도와와의 관련성을 보면 S. Moon and S. Kim(1997)에 따르면 가족의 소득은 은퇴에 대한 경제적 준비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주목되어 왔다. 흑인 전문가의 은퇴에 대한 경제적 준비행동에 대한 연구(V. Richardson & K. M. Kilty, 1989)에서 가족의 소득은 재정적 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G. Jeon and M. Bae(2010)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준비행동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연령, 결혼상태, 본인소득, 배우자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30대보다는 40대와 50대가, 기혼이,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제적 준비행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Bae and K. Jeon(2004)의 논문은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득과 여가의 필요성 인식임을 밝혔다. 소득이 높고 여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수록 은퇴대비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Park(2008)는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을 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향상된 사람일수록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 Yuh et al.(2007)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구주 연령, 부채유무, 소득수준, 부동산 자산,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여부가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를 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L. A. Morgan and J. K. Eckert(2004)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재무적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K. Cha et al.(2008)의 연구를 보면 사회·경제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과 직업, 주거형태가 은퇴 재무 설계 수행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30대 임금근로자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판매직 보다는 전문·관리·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은퇴 후를 대비한 재무 설계를 수행하는 경향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자가를 소유하는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고 20·30대 소비자의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을 추가적인 변수로 사용하여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에 두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개념으로서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한 모형구조로 인해 설명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을 추가변수로 사용한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관련 연구모형을 기초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20·30대 소비자의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 변수(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20·30대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 변수에 따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소비자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자료수집 및 척도구성

본 연구는 전국의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2015. 4. 23~2015. 5. 7까지 15일간 온라인리서치 업체를 통해 웹서베이방식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구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재무교육경험정도, 주관적 금융지식, 계획된 행동이론 구성개념인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주거형태, 총 자산, 총 부채,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지출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무교육 경험정도 문항은 C. An(2005), S. Kang(2014)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총 5문항으로 구

Table 1. Reliability of the scale

| Variable   | Contents  | Cronbach's $\alpha$ | Reference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10)                        | Gender, Age, Education, Marriage, Job, Residence type, Total property, Total debt, Average monthly income, Average monthly disbursement | -                   | -  |
|  | Financial education(5)  | 0.869               | C. An(2005)<br>S. Kang(2014)   |
|  | Understanding of finance(5)   | 0.851               | H. Na(2013)<br>A. F. Heath(1991),<br>D. A. Hershey and J. C. Mowen(2000) |
|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14)                         | Behavioral attitude(6)  | 0.939               | J. Lee(2012)   |
|  | Subjective norm(4)  | 0.840               | Y. Lim(2008)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4)   | 0.610               | S. Yoon(2010)  |
|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4) |   | 0.925               | I. Ajzen(2002)   |
| Total  |   |                     | 38   |

성하였다. 주관적 금융지식 문항은 H. Na(2013), A. F. Heath(1991), D. A. Hershey and J. C. Mowen(2000)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구성개념을 기초로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문항은 J. Lee(2012), Y. Lim(2008), S. Yoon(2010), I. Ajzen(2002)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6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4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에 의해 내적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0.6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0.6 이상이면 허용할 정도의 신뢰 수준이므로(J. C. Numally, 1978) 적절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22.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의 문항의 신

뢰도(Cronbach's  $\alpha$ )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변수, 재무교육경험정도,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 관련변수, 은퇴준비행동의도 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알아보았다. 또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MR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직업, 주거형태, 총 자산, 총 부채,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지출로 구성되었으며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 50.0%, 여자 50.0%이며, 연령은 평균 30세로 20대 50.0%, 30대 50.0%로 구성되었고, 학력은 대졸 미만 36.5%, 대졸이상 63.5%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 67.5%, 기혼 32.5%이었으며, 직업은 사무직(46.5%)이 가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400(100.0)

| Variable                     | Group                            | N(%)              |
|------------------------------|----------------------------------|-------------------|
| Gender                       | Male                             | 200(50.0)         |
|                              | Female                           | 200(50.0)         |
| Age                          | 20s                              | 200(50.0)         |
|                              | 30s                              | 200(50.0)         |
|                              | M(SD)                            | 29.89(5.49)       |
| Education                    | ≤15 years                        | 146(36.5)         |
|                              | ≥16 years                        | 254(63.5)         |
|                              | M(SD)                            | 15.13(1.78)       |
| Marriage                     | Single                           | 270(67.5)         |
|                              | Married                          | 130(32.5)         |
| Job                          | Specialized job/Technical worker | 48(12.0)          |
|                              | Office workers                   | 186(46.5)         |
|                              | government employee              | 6(1.5)            |
|                              | Self-employee                    | 13(3.2)           |
|                              | Student                          | 94(23.5)          |
|                              | Sales·Service                    | 15(3.8)           |
|                              | Housewife                        | 20(5.0)           |
|                              | Others                           | 18(4.5)           |
| Residence type               | possession                       | 220(55.0)         |
|                              | Lease                            | 106(26.4)         |
|                              | Monthly rent                     | 57(14.3)          |
|                              | Others                           | 17(4.3)           |
| Total property               | M(SD)                            | 7626.64(13107.64) |
| Total debt                   | M(SD)                            | 1346.71(3949.31)  |
| Average monthly income       | M(SD)                            | 181.45(156.17)    |
| Average monthly disbursement | M(SD)                            | 86.26(90.95)      |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총 자산은 평균 7626.64만원이었고 총 부채는 평균 1346.71만원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평균 181.45만원이었으며 월 평균 지출은 평균 86.2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 혼자만의 총자산, 월평균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였고, 또한 직업이 없는 학생 및 주부가 28.5%나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IV. 연구결과

1.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 변수 수준

1)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에 대한 수준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재무교육경험정도는 전체 평균 2.64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아 20·30대 소비자들이

재무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설계 기초(지출관리, 자금관리, 대출 및 신용관리 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세금관리(증여와 상속 포함) 교육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경험이 많은 항목도 절대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 또한 전체 평균이 2.64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주관적 금융지식이 부족하다고 소비자들 스스로 지각하고 있을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금융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는 다른 분야보다 은퇴를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은퇴준비 변수 수준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한 수준을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다.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는 전체 평균 4.0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경제적 은퇴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Financial Education and Understanding of Finance

| Item                     |   | M <sup>1)</sup> (SD) | Total      |
|--------------------------|---|----------------------|------------|
| Financial education      | Basics of financial design  | 2.74(1.11)           | 2.64(1.00) |
|                          | Tax administration  | 2.50(1.12)           |            |
|                          | Investment management   | 2.66(1.17)           |            |
|                          |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 2.72(1.10)           |            |
|                          | Retirement Preparation  | 2.57(1.12)           |            |
| Understanding of finance | I know more about the financial sector than other sectors.                                  | 2.67(1.01)           | 2.64(1.00) |
|                          | I know more about the financial sector than others.   | 2.75(1.07)           |            |
|                          | I know more about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than other sectors.                     | 2.57(1.06)           |            |
|                          | I know more about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than others.                            | 2.59(1.10)           |            |
|                          | When I need a financial plan for retirement, I exactly know where to get some informations. | 2.66(1.02)           |            |

1) Full mark is 5.

Table 4.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Item                         |  | M <sup>1)</sup> (SD) | Total      |
|------------------------------|--|----------------------|------------|
| Behavioral attitude          | I think it is good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4.00(0.84)           | 4.02(0.71) |
|                              | I think it is positive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4.06(0.79)           |            |
|                              | I think it is wise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4.08(0.83)           |            |
|                              | I think it is beneficial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4.00(0.82)           |            |
|                              | I think it is useful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4.00(0.80)           |            |
|                              | I think it is desirable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4.01(0.82)           |            |
| Subjective norm              | Parent<br>My parent supports that I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br>I completely follow the opinions of my Parents.                                   | 3.26(0.77)           | 3.19(0.73) |
|                              | Friend·colleague<br>My friend and colleague supports that I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br>I completely follow the opinions of my friends colleague. | 3.12(0.80)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I am capable of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whenever I want.  | 2.78(1.00)           | 3.07(0.80) |
|                              | I am sufficiently capable of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3.46(0.93)           |            |
|                              | I have enough time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3.21(1.03)           |            |
|                              | I have enough money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2.82(1.03)           |            |

1) Full mark is 5.

주관적 규범은 평균 3.19점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증거집단별로 보면 가족(3.26)의 의견 및 지지가 동료·친구(3.12)의 의견 및 지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은 전체 평균 3.07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은퇴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용이하다는 생각은 보통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는 경제적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소비자들은 경제적 은퇴준비를 미리 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 소비자들이 일찍부터 경제적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은퇴준비를 하는 데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 1)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수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대한 수준을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수준은 전체 평균은 3.68점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절대적인 면에서는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30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2)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 변수에 따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차이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 변수에 따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재무교육경험정도( $p<.001$ ), 주관적 금융지식( $p<.001$ ),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p<.001$ ), 주관적 규범( $p<.001$ ), 지각된 행동통제(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이 높은 상집단과 중, 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재무교육경험이 많고 자신이 금융지식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J. Kim and S. Park(2013)의 연구결과인 노후생활인식과 경제적 은퇴준비 간에는 각 요인별로 재무교육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D. A. Hershey and J. C. Mowen(2000)의 연구결과인 스스로 평가한 재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증가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상, 중, 하 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상인 집단은 가장 높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중, 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20·30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높이려면 먼저 은퇴준비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Table 7>에서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았다. Tolerance 0.1을 초과하고 VIF 값이 10 미만임을 통해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되는 일 평균 소득과 주관적 금융지식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아울러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거주형태를 가변수(Dummy Variable)화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beta=0.56$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각된 행동통제( $\beta=0.38$ ), 주관적 규범( $\beta=0.10$ ),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 학력( $\beta=0.07$ )의 순서를 보였다. 즉 은퇴준

Table 5.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 Item   | M <sup>1)</sup> (SD) | Total      |
|---|--|----------------------|------------|
|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I would be willing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3.62(0.88)           | 3.68(0.77) |
|   | I will try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3.78(0.86)           |            |
|   | I will invest the money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3.68(0.88)           |            |
|   | I will invest the time to prepare for financial retirement.  | 3.65(0.86)           |            |

1) Full mark is 5.

Table 6. The differences of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with financial education, understanding of finance,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Variable                     | Group <sup>1)</sup> |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
|------------------------------|---------------------|---|-----------------|
|                              |                     | M   | D <sup>2)</sup> |
| Financial education          | High                | 4.07  | b               |
|                              | Middle              | 3.59  | a               |
|                              | Low                 | 3.46  | a               |
|                              | F <sub>(3)</sub>    | 18.86 <sup>***</sup>                                      |                 |
| Understanding of finance     | High                | 4.07  | b               |
|                              | Middle              | 3.61  | a               |
|                              | Low                 | 3.50  | a               |
|                              | F <sub>(3)</sub>    | 14.14 <sup>***</sup>                                      |                 |
| Behavioral attitude          | High                | 4.40  | c               |
|                              | Middle              | 3.64  | b               |
|                              | Low                 | 2.80  | a               |
|                              | F <sub>(3)</sub>    | 100.38 <sup>***</sup>                                     |                 |
| Subjective norm              | High                | 4.18  | c               |
|                              | Middle              | 3.63  | b               |
|                              | Low                 | 3.25  | a               |
|                              | F <sub>(3)</sub>    | 28.96 <sup>***</sup>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High                | 4.37  | c               |
|                              | Middle              | 3.69  | b               |
|                              | Low                 | 3.17  | a               |
|                              | F <sub>(3)</sub>    | 51.74 <sup>***</sup>                                      |                 |

1) High: value>M+SD, Middle: M-SD~M+SD, Low: value<M-SD

2)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 b < c

<sup>\*\*\*</sup>p < .001

Table 7. The influences of variables on the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Variable <sup>1)</sup>            | Behavioral intention for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 Multicollinearity |      |      |
|-----------------------------------|---|----------------------------------|-------------------|------|------|
|                                   | B(β)  | Tolerance                        | VIF               |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Gender  | Female                           | -0.02(-0.01)      | 0.84 | 1.19 |
|                                   |   | Age                              | 0.00(-0.02)       | 0.42 | 2.41 |
|                                   |   | Education                        | 0.03(0.07)        | 0.81 | 1.24 |
|                                   | Marriage  | Single                           | -0.06(-0.04)      | 0.62 | 1.61 |
|                                   | Job   | Specialized job/Technical worker | -0.05(-0.02)      | 0.46 | 2.17 |
|                                   |   | Office workers                   | -0.07(-0.04)      | 0.34 | 2.99 |
|                                   |   | Others                           | -0.09(-0.04)      | 0.43 | 2.34 |
|                                   | Residence type  | Lease                            | -0.05(-0.03)      | 0.87 | 1.15 |
|                                   |   | Monthly rent                     | 0.09(0.04)        | 0.83 | 1.21 |
|                                   |   | Others                           | 0.11(0.03)        | 0.92 | 1.09 |
|                                   |   | Total property                   | 0.00(-0.04)       | 0.62 | 1.63 |
|                                   |   | Total debt                       | 0.00(0.03)        | 0.75 | 1.34 |
|                                   |   | Average monthly income           | 0.00(-0.04)       | 0.64 | 1.57 |
|                                   |   | Financial education              | 0.03(0.04)        | 0.65 | 1.54 |
|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Behavioral attitude                                       | 0.61(0.56) <sup>***</sup>        | 0.84              | 1.20 |      |
|                                   | Subjective norm   | 0.10(0.10) <sup>**</sup>         | 0.68              | 1.48 |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0.36(0.38) <sup>***</sup>        | 0.58              | 1.71 |      |
|                                   | Constant  | -0.68 <sup>*</sup>               |                   |      |      |
|                                   | F   | 40.48 <sup>***</sup>             |                   |      |      |
|                                   | R <sup>2</sup>  | 0.64                             |                   |      |      |

1) Dummy variables: Gender(Male), Marriage(Married), Job(Student), Residence type(Possession)

<sup>\*</sup>p < .05, <sup>\*\*</sup>p < .01, <sup>\*\*\*</sup>p < .001

비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64.0%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변수인 재무교육경험정도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높이려면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됨을 알 수 있다. 즉, 20·30대 소비자 대상으로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을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은퇴 후 삶의 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생활자금과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예산액을 계산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은 필수적이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은퇴를 경험하지 않은 20대·30대 소비자의 재무교육경험정도 및 주관적 금융지식, 경제적 은퇴준비관련 변수를 살펴보고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더 나은 은퇴준비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초로 은퇴관련 준비변수인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의 결과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30대 소비자의 재무교육경험정도와 주관적 금융지식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노후설계 및 세금관리의 교육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은퇴관련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 개념으로서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 소비자들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규범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20대·30대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 20대·30대 소비자들이 경제적 은퇴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대·30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절대적인 면에서는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 Hong and I. Kwak(2007)의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은퇴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집단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을 때 가족, 동료·친구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수준이 높을 때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 Park(2008) 및 L. A. Morgan and J. K. Eckert(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재무교육경험정도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소비자들이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20·30대 소비자들은 경제적 은퇴준비를 미리 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경제적 은퇴준비를 미리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범위의 경제적 은퇴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대 소비자들은 용돈 같은 작은 금액부터 장기적인 경제적 은퇴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20·30대 소비자들이 절대적인 면에서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20·30대 소비자들은 은퇴를 고민하기 전에 취업을 고민해야 하고, 취업하여 직장인이 되더라도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

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은퇴준비는 일찍부터 상당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하므로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은퇴준비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20·30대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횟수와 시간도 중요하지만 20·30대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요구된다. 즉,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을 실시할 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정 기한 내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셋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20·30대 소비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 미치는 관련변수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경제적 은퇴준비행동 대한 소비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30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때 주변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족들의 영향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20대·30대 소비자들에게 은퇴준비의 용이성에 대한 지각을 높이기 위한 인식전환 및 실제 은퇴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넷째, 재무교육경험정도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재무교육 프로그램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재무교육 경험정도에 따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대 소비자들의 재무교육의 경험정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재무교육경험정도가 낮은 20·30대 소비자들에 대한 재무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0%가 넘어 고학력자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학력 등의 일반적인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해 본 결과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상당수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계획된 행동이론을 지지하였으나 재무교육경험정도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추가변수 및 변수들 간의 새로운 구조관계가 고려되

어야 한다. 아울러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한 인과관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및 다른 추가변수들을 통해 살펴보고 20·30대 소비자들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점을 강조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Cliffs, NJ: Prentice-Hall.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An, C. H. (2005). *The effects of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on the financial behaviors, subjective/objective economic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n, D. Y., & Kim, J. S. (2009). A study on influence of brand community's characteristics in community loyalty,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4, 165-198.
- Arnone, W. J. (1999). *Selling the value of employee financial education to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Personal Finance Employee Education Conference, Virginia Tech, Roanoke.
- Bae, J. D. (2013). *A study on the main causes of the understanding and retirement attitude on the aged life of the middle aged class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the retir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Bae, M. J., & Jeon K. Y. (2004).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7), 89-102.
- Baek, E. Y., & Joung, S. H. (2012). Baby boomers' financial status and the effects of housing equity on re-

- 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5(1), 141-160.
- Bailey, L. L., Simons, T. R., & Pollock, K. H. (2004). Estimating site occupancy and species detection probability parameters for terrestrial salamanders. *Ecological Applications*, 14(3), 692-702.
- Bayer, P. J., Bernheim, B. D., & Scholz, J. K. (2009).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employers. *Economic Inquiry*, 47(4), 605-624.
- Brucks, M. (1985). The effects of product class knowledge on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1), 1-16.
- Cha, K. W., Park, M. Y., & Kim, Y. J. (2008).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mong paid workers aged 20s and 30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6(1), 149-163.
- Choe, H. J., Joo, S. H., Cho, H. J., & Kim, M. J. (2012). The change of the retirement readiness indexes of wage-earner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8(1), 45-71.
- Choi, H. J., & Lee, Y. B. (2005). Research on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amo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based on socio-psycho paradig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3), 415-435.
- Croy, B. A., Zhang, J., Tayade, C., Colucci, F., Yadi, H., & Yamada, A. T. (2010). Analysis of uterine natural killer cells in mice. *Molecular Methods*, 612, 465-503.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Ha, H. R.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20s and 30s office workers' financial tendency and financial literacy on retirement prepa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Ha, H. R., & Lee, S. L. (2014). Retirement saving behavior of the employed youth in 20's~30'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0(2), 93-105.
- Ham, S. H.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costs on hospital workers' consciousness of preparation and their measures for their old-age life: Focused on those working for a general hospital in dongdaemun-gu, Seou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Hausenblas, H. A., Carron, A. V., & Mack, D. E. (1997). Application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ur to exercise behaviou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1), 36-51.
- Heath, A. F. (1991). *Understanding political change: The british voter 1964-1987*. Oxford: Pergamon Press.
- Hershey, D. A., & Mowen, J. C. (2000).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edness fo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0(6), 687-697.
- Hershey, D. A., Jacobs-Lawson, J. M., McArdle, J. J., & Hamagami, F. (2007).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4(1-2), 26-36.
- Hirad, A., & Zorn, P. M. (2001). *A little knowledge is a good thing: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pre-purchase homeownership counseling*(Low-Income Home ownership Working Paper Series, LIHO-01.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 Hong, H. S., & Rhee, K. C. (1997). Needs assessment of the married women for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2), 53-69.
- Hong, S. H., & Kwak, I. S. (2007). Causal effects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2), 89-104.
- Howlett, E., Kees, J., & Kemp, E. (2008). The role of self regulation, future orientation, and financial knowledge in long term financial decision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2(2), 223-242.
- Jacobs-Lawson, J. M., & Hershey, D. A. (2005). Influence of future time perspective, financial knowledge, and financial risk tolerance on retirement saving behaviors. *Financial Services Review*, 14(4), 331-344.
- Jang, W. S. (2011). *The effect of Taekwondo academies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relationship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G. Y., & Bae, M. J. (2010).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8(1), 13-24.
- Jeong, W. Y., & Baek, E. Y. (2009). Causal effects on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retirement preparat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25(2), 115-139.
- Jin, Y. J. (2009). A study on the elderly's demands of welfare service and related variables: Economic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 227-245.
- Joo, S. H., & Grable, J. E. (2005). Employee education and the likelihood of having a retirement savings program.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6(1), 37-49.
- Joo, S. H., & Pauwels, V. W. (2002). Factors affecting workers' retirement confidence: A gender perspectiv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3(2), 1-10.
- Kang, S. K.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financial education, retirement expectations, social supports for middle: Aged on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Seoul, Korea.
- 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09). *A survey on the office worker retirement*. Seoul, Korea: Author.
- Kim, E. J., & Moon, C. S. (2010). A study on the developing financial literacy in middle school.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6(1), 67-77.
- Kim, J. H., & Choe, H. C. (2012).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1), 229-254.
- Kim, J. M., & Park, S. B. (2013). Effect of the perception toward after-retirement preparation influencing to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With emphasis on moderating effect of the finan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24(2), 143-181.
- Kim, S. H. (2009). *A study on the preparation among the workers for old age: Focused on the Konj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 Kwon, I. T. (2015).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 content for retiree's financial design after employee's retire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3(2), 175-199.
- Lee, Y. H. (2007). *Study of provision for old age and preference for welfare service for old people in aging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S. (2012). The effect of sensory experience on emotion, bran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4(5), 139-158.
- Li, J. T. (2012). *An analysis of family restaurant customers' attitude b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Focus on Dandong,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 Lim, J. W., Kim, J. I., Hong, S. T., & Lee, Y. J. (2006). *Consumer Behavior(3th Edition)*. Seoul: Kyungmoon.
- Lim, S. H. (2013). *Unrealistic optimism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young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Y. J. (2008). *Research model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predicting foreign tourists' behavior toward Korean wave cultural cont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Mirae Asset Life Retirement Research Center. (2012). 2011 Status Survey of pre-retirement. *Retirement & Pension*, 61, 10-17.
- Moon, S. J., & Kim, S. M. (1997). A preliminary study on financial program development for retirement preparation: Focused on family life cycle stag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15.
- Morgan, L. A., & Eckert, J. K.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19-34.
- Na, H. R.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retirement prepa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Num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Y: McGraw-Hill.
- Park, C. J. (2008). Type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by ag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4), 139-166.
- Park, H. Y. (2009). *A study on young or middle aged salary men's provision for their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S. (2004).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preparation for their own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Y., & Cho, H. J. (2012).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retirement planning behavio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8(3), 89-112.
- Park, Y. S., Glenn, J. C., Gordon, T. J., & Florescu, E.

- (2012). *2030 State of the Future(Korean Edition)*. Paju: Kyobo Library.
- Richardson, V., & Kilty, K. M. (1989).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black professionals. *The Gerontologist*, 29(1), 32-37.
- Samsung Life Retirement Research Center. (2014). *Pre-retirement Koreans' 2014*. Seoul: Wow Image.
- Schifter, D. E., & Ajzen, I.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843-851.
- Statistics Korea. (2015). *Abridge life table(5 years intervals)*. Retrieved from www.kostat.go.kr
- Sung, Y. A. (2012). An analysis on the needs and preference for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counseling.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2), 85-105.
- Sung, Y. A., Yang, S. J., Lee, H. S., Cha, K. W., & Choe, H. C. (2006). Suggestions for the operation of personal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curriculum.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2(1), 21-39.
- U.S. Census Bureau. (2016). *An aging world: 2015(P95/16-1)*. Washington D.C., U.S.: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 Yang, S. J., & Lee, S. L. (2009).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financial behavior between household conducting and not-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1), 1-16.
- Yoon, J. H., Kim, K. J., Sung, Y. A., Sohn, S. H., Yang, S. J., Lee, H. S., & Choe, H. C. (2001), Research directions of planning, counseling, and education of personal finance for practical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2(3), 89-108.
- Yoon, S. M. (2010). *A study on the behavioral adherence of tourists pursuing adventurous leisure activity, by using extension about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the role of flow, attachment and pas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Yuh, Y. K., Joung, S. H., & Moon, S. J. (2007).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0(3), 129-155.

- Received: July 15. 2016
- Revised: September 23. 2016
- Accepted: October 23. 2016